2026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①	2	③	3	②	4	④	5	⑤
6	②	7	②	8	③	9	③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④	15	③
16	④	17	①	18	③	19	③	20	④
21	④	22	①	23	③	24	⑤	25	②
26	①	27	⑤	28	②	29	②	30	⑤
31	①	32	④	33	⑤	34	②		

[독서이론]

[1 ~ 3] <출전> 로이스 타이슨, 「비평이론의 모든 것」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이항 대립 구조를 단서로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이항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에 저자가 어느 쪽의 개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위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개념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개념 사이의 위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저자는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표현하여 긍정적인 개념으로, 당대의 신분 질서를 '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대립시켜 홍길동의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위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의 ㉢에서 학생이 '길동의 의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지는 모습도 표현'했다고 말한 것은, 학생이 글에서 저자가 긍정적인 개념으로 강조한 길동의 행동이 글에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려지는 장면을 포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은 학생이 글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개념인 '당대의 신분 질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저자가 '당대의 신분 질서'가 부정적이라고 설정한 위계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에서 학생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당대의 신분 질서'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문단에서 '이항 대립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독자가 '글에서 대립되어 있는 두 가지 개념의 짝을 찾'아 '글의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항 대립 구조임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학생이 글에서 홍길동과 당대의 신분 질서를 대립되어 있는 두 가지 개념의 짝으로 찾아 이항 대립 구조를 식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에서 학생이 글에서 '의적 홍길동을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당대의 신분 질서'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문단에서 '이항 대립 구조 속의 위계를 파악'하는 것은 독자가 글에서 '맥락을 분석하여 저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개념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개념 사이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학생이 글에서 저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홍길동이라는 개념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당대의 신분 질서라는 개념 사이의 위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에서 학생이 글에서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었을 때 태평성대가 왔다'고 서술한 부분을 보고, 저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개념인 당대의 신분 질서에 대해 '왕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신분 질서가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에서 '파악한 위계의 모순을 밝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로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어긋나는 지점을 포착하여 위계의 모순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학생이 글에서 저자가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한 개념인 '당대의 신분 질서'가 실제 글에서 '사회 안정에 필요'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포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에서 학생이 「홍길동전」을 읽고 '당대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문단에서 독자는 해체적 읽기를 통해 '글의 의미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글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학생이 「홍길동전」이 '당대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의미'로만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임을 깨닫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독자가 '보편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A]는 독자가 해체적 읽기를 하여 글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과 글이 '저자에 의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의미를 확장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능동적인 독자로 거듭'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는 독자가 보편적인 해석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 것과 달리 [A]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확장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4 ~ 9] <출전> 버트런드 러셀, 「철학의 문제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세계를 객관적 실재로 이해하고, 지식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눈 러셀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세계가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각 지식을 각각의 언어 게임에 속한 것으로 본 리오타르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나)의 3문단에서 '문장 우주 안'에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과학이나 윤리 등 서로 다른 영역도, 명제로 표현된 것과 세계와의 대응 여부로 참과 거짓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평가 방식을 지닌다고 보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에 대한 지식이 대표적'이며 "장미"와 같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물론, '붉음' 같은 속성이나 '다양성' 같은 관념 등도 직접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언어 게임은 과학적 언어 게임, 윤리적 언어 게임 등 그 종류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언어 게임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가)의 2문단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은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는 4문단에서 '서사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에서 5문단의 '러셀은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명제의 경우에도 명제의 분석을 통해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를 통해 러셀은 지시 대상이 있는 기술뿐 아니라 지시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명제의 분석을 통해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에서 '러셀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는 기술이 포함되면 명제 자체가 거짓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현재 프랑스의 왕"이라는 기술은 지시하는 대상이 없'으므로 ㉮는 러셀의 입장에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셀은 ㉮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스트로슨은 '문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에만 문장의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 '현재 프랑스의 왕'은 현재 프랑스가 군주제가 아닌 상황임을 전제로 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트로슨은 ㉮는 참과 거짓이 결정될 수 없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3문단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감각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A가 폭죽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폭죽 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의 4문단에서 '기술은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이 소리는 폭죽 소리야."는 직접 대면한 '폭죽 소리'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임을 알 수 있다. 1문단의 '명제가 세계와 대응되면 그 명제는 참이며 ~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을 통해 러셀의 관점에서 참과 거짓은 명제와 세계의 대응 관계를 통해 결정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소리는 폭죽 소리야."라는 명제는 A가 들은 소리가 실제 폭죽 소리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A가 들은 소리가 세계와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 참인 명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A는 실제로 폭죽놀이를 보고 폭죽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가)의 3문단을 볼 때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에 대한 지식', 즉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다. 직접적 인식에 의한 지식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하며 얻고 '사물에 대한 지식'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B는 자신이 들은 소리를 풍선이 터지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러셀의 관점에서 자신이 들은 폭죽 소리를 풍선이 터지는 소리에 대응시킨 것으로, 두 소리 간의 관계를 실제 세계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가)의 2문단에서 '여러 사실들의 관계를 세계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게 판단한 경우 그 판단은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④ '폭죽 소리'라는 언어 기호는 발신자 A에게는 즐거운 상황과 관련된 소리라는 의미이고, 수신자 B에게는 위험한 상황과 관련된 소리라는 의미인데, (나)의 3문단을 보면 '문장 우주 안'에 있는 '발신자, 수신자, 지시되는 대상, 의미'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어 기호는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이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폭죽 소리'라는 언어 기호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같은 폭죽 소리에 대해 A가 '매년 하는 폭죽놀이'에 쓰여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로, B가 마을에서 '폭죽 소리가 멧돼지를 쫓는 데 쓰'여 위험한 상황과 관련된 소리로 여기는 것은, 폭죽과 관련된 각각의 마을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나)의 2문단에서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들'은 '각자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A와 B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 게임 간에는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이질적인 언어 게임'은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벗어나 지나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밑줄 친 부분의 '넘었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므로 적절하다.

① ⓐ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의미인데,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소중히 생각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는 '대상을 어떠하다고 평가하다.'라는 의미인데,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의미인데, 밑줄 친 부분은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밑줄 친 부분은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10 ~ 13] <출전> 유진 헥트, 「광학」

10.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

3문단에서 '자오면'은 '광축을 중심으로 물체점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물체점이 주광선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상점'은 '렌즈로 입사한 여러 광선'이 '수렴하는 점'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의 대부분은 타원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광축'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면에 수직인 가상의 직선'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최소 착란원'은 '일차상과 이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 중 가장 뚜렷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자오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였고, '구결면은 자오면과 수직'이며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였으므로 A는 자오면, B는 구결면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선분의 형상으로 맺히는 상이라고 한 C가 평면 B 위에 놓여 있는 것, 4문단에서 '일차상'은 '선분의 형상'이며 '일차상은 구결면 위에 놓'인다고 한 것에 근거할 때 C는 일차상임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 것에서,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비점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P_0와 P_3는 광축과 수직인 축 위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_0부터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P_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_3부터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4문단에서 '비점 격차가 커질수록 일차상의 길이와 이차상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하였으므로, 물체점을 P_0에서 P_3로 옮겼을 때 C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P_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보다 짧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E는 '원형을 띠는 상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일차상인 C와 이차상인 D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문단에서 '일차상과 이차상' '중간 부근에 원형을 띠는 유일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상을 최소 착란원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E는 최소 착란원임을 알 수 있다.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비점 격차가 커지며, 4문단에서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흐려진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현재 물체점은 P_0에 놓여 있'으며,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_1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두 배'라고 하였으므로 물체점을 P_1으로 옮긴다면 비점 격차는 작아져, E가 물체점이 P_0에 있었을 때보다 더 뚜렷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자오 상점과 구결 상점 사이의 거리'를 '비점 격차'라고 하였다. <보기>의 C는 일차상이고 D는 이차상이며, 4문단에서 '자오 상점에서 맺히는 상을 일차상', '구결 상점에서 맺히는 상을 이차상'이라고 하였으므로 C에서 D까지의 거리는 비점 격차임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며, <보기>에서 '현재 물체점은 P_0에 놓여 있'다고 하였고,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_2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절반'이라고 하였으므로, 물체점을 P_2로 옮긴다면 C에서 D까지의 거리는 물체점이 P_0에 있었을 때의 2^2배, 즉 4배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E는 최소 착란원이고, 4문단에서 '비점 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은 크기가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 것에서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P_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P_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와 같다면, 물체점을 P_0에서 P_3로 옮겼을 때 비점 격차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E의 크기 역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비점 수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물체점이 현재 P_0에 놓여 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벗어나면 ~ 비점 수차가 발생한다'라고 하였으므로 P_0는 광축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자오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 하였고, '구결면은 ~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한 것에서 자오면과 구결면이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임을 알 수 있으며,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벗어나면' '자오면 위에 있는 광선들인 자오 광선과 구결면 위에 있는 광선들인 구결광선은 입사 양상이 다르'다고 한 것에서, 물체점이 P_0에 있을 때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는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 'P_4는 광축 위에 있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으면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들로 광선 다발을 나누었을 때,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해진다'고 한 것에서, 물체점이 P_4에 있다면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는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서 '자오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하였고, '구결면은 자오면과 수직인 평면'이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일차상'은 '구결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고, '이차상'은 '자오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일차상과 이차상이 놓인 평면이 수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일차상과 이차상 또한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에서 '해당한다'는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럿이 서로 잘 조화되어 자연스럽게 보이다'를 의미하는 '어울린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향하다'는 '어느 한쪽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동일하다'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유사하다'는 '서로 비슷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14 ~ 17] <출전>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공용부분에는 ~ 엘리베이터와 같은 건물의 부속물이 있다.'에서 건물의 부속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예가 엘리베이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집합건물법과 구분소유권의 관계에 대해서술하였으나 집합건물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을 개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구분소유권의 주체인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동으로 얻게 되는 권리가 바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구조상 독립성이란 각 건물 부분이, ~ 쉽게 이동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부분에 의해, 공용부분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과 차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용상 독립성이란 해당 부분이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고도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갑이 공동 휴게 공간에 철거하기 쉬운 가림막을 설치한다면 가림막은 '쉽게 이동되거나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만들고 싶어 한 개인 작업실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을 것이고, 복도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낸다면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상 독립성은 있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도 규약을 통해 공용부분으로 지정하여 노인정, 공동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때는 공용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공용부분의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고층일수록 각 호실의 전유부분 면적이 넓은 ○○ 아파트에서는 갑보다 을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도 갑보다 을

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용부분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역시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부분에서 공동 휴게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갑보다 을이 더 클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전유부분에 하자가 생긴 경우라도, 하자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여기고 구분소유자의 공동책임으로 보아 관리단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을이 전유부분에 생긴 하자인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관리단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안전 등을 사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 훼손된 공용부분을 복구하는 보존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A]에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다른 절차가 없어도 설립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구성원이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관리단은 ~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관리단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현대 소설]

[18 ~ 21] <출전> 이동하, 「모래」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발을 떼 놓으려다 말고 멈추어 섰다'는 것과 '타과 소속의 사환애들 ~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에서 사환아이가 타과 소속의 사환애들이 나타나서 발걸음을 멈추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환아이인 영희가 타과 소속의 사환애들을 멈춰 세운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지금은 구정 대목을 ~ 공급이 엄청나게 달리는 판인 것이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철제 대문과 ~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져 왔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일정이 너무나 바빴기 ~ 국제전화 한 통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회사는 당장 다음날부터 ~ 인책 사임의 소문과'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은 특정 인물인 '사환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특정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회사의 휴무라는 상황에 대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사환아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총무부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해묵은 천식을 앓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서너 시간마다 탄불을 갈아 넣으라고 성화일 것'이라며 그 인물이 보일 법한 행동을 짐작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수위장 김씨'가 '경황없이 통화를 끝낸' 후, '내용을 메모'하고, '그걸 전했노라고 실토'하는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이대목'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입맛만 다셨'다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내가 귀국할 때까지 모든 일을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로 인해 '당분간 일체의 조업을 중단하고 휴무함. 사장백'이라는 ⓐ가 사환들에게 공유되었으므로 ⓑ가 작성된 시점은 ⓐ가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시점보다 앞선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숙직 사령 한비서'가 '술이 억병으로 취해' '잠에 곯아떨어져'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수위장 김씨'가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비서 행세'를 하며 '통화를 했'을 뿐, 이때는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면한 위기에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모습은 엿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지난 여름'에 '쥐꼬리만한 사환 봉급까지 삼십 프로나 에누리하여 지급'하였으며, '사환아이'는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에서, 임금 삭감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부당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환애'는 회사의 '휴무'라는 '돌연한 사태'가 '그다지 해로울 게 없다'고 여기며 '친구들이나 죄 순방해 보'고자 하는 것에서, 당면한 사건인 휴무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부족한 노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남자 사환애'가 '당분간 조업'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휴가 같은 게 아니'라 '결국 회사 문을 처닫는단 소리'라고 하는 것에서, 일시적 조업 중단이 회사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 현실에 대한 노동자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회사가 '정상 업무를 한다고 공시'하였지만 '전사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실업의 위기가 몰아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취약한 기업 구조로 인한 노동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 시 · 고전 수필]

[22 ~ 26] <출전> 윤동주, 「흐르는 거리」
고정희, 「따뜻한 동행」
남유용, 「난설」

2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박(朴)이여! 그리고 김(金)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동무'들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은 '사랑하는 동무'들을 '안개'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된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무'들이 '어디 있는가'를 궁금해 하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느 곳으로 '흘리워 가는'지 알 수 없음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거리 모퉁이'에 있는 '가로등'의 빛이 환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임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이십도의 따뜻하고 해맑은 강물'과 '이십도의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이 짝을 이루어 '겹쳐 흐르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별 둘이' '뜬' 시점이 일정한 때를 지났음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의 '따뜻하고 드맑은 강물' 위에 '가야금소리'가 '깃'든다는 표현은 '따뜻하고', '드맑은'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의 반복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긍정적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의 '금휘장'에 '금단추'를 단 '베달부'가 '찬란히 나타'난다는 표현은 감각의 전이를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거리'가 갖지 않은 '홀러간다'는 속성을 활용하여 거리의 상태를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대비되는 시간인 '낮'과 '밤'을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인 '외로운 사람들'과 화자가 강물을 통해 연결되는 시적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는 '끝없이' 흐른다는 과장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인 '안개'의 동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또한 (나)는 '온누리 껴안으며' '삼라의 뜻을 돌아'왔다는 과장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인 '강물'의 동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가)는 '동무'인 '박'과 '김'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이미지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또한 (나)는 '잔잔한' 강물이 '속에' 품은 생명력을 '춤추'는 '숭어떼'로 이미지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객은 '나타나는 것은 바람이 ~ 잎은 강해집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객은 난초가 바람과 비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버릴 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주인은 '이 난의 뭄뭄이는 풀과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주인은 '멈추어라. 대저 저 사람의 말은 거의 통달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주인은 '동자를 시켜 풀 덩굴을 치우고 흙을 거두어내서 흙단을 만들어 높이'게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무너진 흙이 덮고 풀 덩굴이 둘러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난초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가 '많은 사람들'이 '정박할' '항구'가 없는 상황을 '가련'하다고 표현한 것을 통해 유랑하는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다)의 글쓴이는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주인을 '당신이 난초를 ~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객의 말을 통해 존재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 시가]

[27 ~ 30] <출전> 작자 미상, 「노인가」
작자 미상, 「공도라는 백발이요~」
김득연, 「영회잡곡」

27.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소문없이 오는 백발', '청좌없이 오는 백발' 등에서 '백발'을 의인화하여 머리가 하얗게 세는 것을 덧없어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위풍으로 제어하면 겁내야 아니올까', '기운으로 쫓아보면 못이기어 아니올까'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천황 지황 인황 후에 복희 신농 헌원 씨며 요순우탕 문무주공 성덕 없어 붕하셨나'에서 나열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는 '시비인들 내 알며 영욕인들 내 알더냐'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와 (나)는 색채어인 '백발'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은 '불사약 얻어다가 쇠하지 않게 하야불까'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야도 생각하나 늙을 밧 할 수 없다'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해도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덧없이 가는 세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들'에게 '백발보고 웃지' 말라며 행동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옥식도 쉬어지면 수채 구멍 찾아' 간다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만사가 허사'라는 세상일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만리장성 굳이 쌓고 장수불사 하려다 여산의 고혼'이 되었다는 '진시황'의 행적을 서술하며 인물에 대해 '어리석다'는 평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일단사 일표음이야 내 분인가' 한다며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는 화자가 꺼리는 '백발'을 찔러서 무섭게 하여 차단하기 위한 대상이고, ⓑ는 외부에서 '벗이 올 이 없'는 화자의 단절된 상태를 알 수 있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늙을사록 분한 마음 정할 수 바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는, 늙을수록 분한 마음을 가지며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늙는 줄을 내 모르니' '영욕인들 내 알더냐'는 것에서는, 영욕과 같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노년을 살아가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노년에 머리가 하얗게 세는 외면적 모습의 변화로 인해 늙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도덕 영웅들과의 비교를 통해 초로인생인 자신의 현재 삶을 수용하며 여생을 즐기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매일 송국죽을 즐기며 늙는 줄을 모른다며 노년의 삶을 긍정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백발과 같은 신체의 노화를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 소설]

[31～34] <출전> 작자 미상, 「방주전」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황건역사가 '방주의 뺨을 한 번 치니' '방주'가 '다시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되었'고, '황천강에 이르러 방주를 발로 밀어 차 물에 빠뜨렸다'고 한 것에서 '방주'가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된 후에 황천강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황제'는 '무수한 적병을 물리'친 '젊은 장수'를 '바라보'다가, '신하'에게 '누가 알 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부인'이 '열여검을 들어 풀 베듯하니 적졸들이 혼비백산해' '흩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백호가 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인이 기뻐'했다고 하였고, '부인이 백호의 등에 올라타고 집에 돌아와 부모 앞에 하직'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방주'가 '염왕'을 만나고 돌아와 '눈을 떠 보니' '부인 정 씨는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진사 부부는 방주가 '저렇듯 깨달은 것'에 '늙은 우리 부부의 홍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부모와 처자를 보전케 하며 우리 방씨 가문을 창성케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B]에서 부인은 '낭군과 함께 죽고자' 전장에 나가면서 '유 부인과 한 낭자'에게 '무사히 돌아'올 상황과 '그렇지 못'할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부인은 낭군 방주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자 '일어나 기뻐하며 답례하'면서 '큰 행복'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방주의 변화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제는 '잔명을 보전케' 해 준 부인에게 하례하며 '황감'해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 준 부인에게 감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방주 부부가 '부모의 침소'에서 '물러나'온 '그날부터' '진사 부부'를 '공양하고' '지성으로 돌보니' '인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것은 방주 부부가 국가 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효'라는 윤리적 실천을 행하여 인정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방주가 자신을 '기름에 삶으라'는 '염왕'의 명령에 두려워 빌며 '개과천선'하겠다고 비는 것은, 방주가 초월적 존재인 '염왕'이 자신을 기름에 삶으라고 한 시련을 계기로 자신이 불효했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친 것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초월적 존재인 선관이 '부인'에게 '천상의 보배'를 건네며 '큰 공을 이루라'고 당부하는 것은 정당한 가치 실현을 위해 전장에 나가 방주와 황제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부인이 '부모 앞에 하직하고, 유 부인과 한 낭자와 더불어 작별'한 '그날로 길을 떠나' '적병이 명나라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서평관'에 가서 '백호'에게 '나와 함께 큰 공을 이루'라고 '경계해' 말하는 것은 부인이 '사직을 보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황제와 방주를 구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부인이 '무수한 적병을 물리'쳐 '적 진중에 싸여 거의 죽게' 된 '황제'를 구해 내는 것은 '부인'이 국가적 위기에 '백호를 타고' '무수한 적병을 물리'치는 직접적인 대응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⑤	**37**	⑤	**38**	⑤	**39**	④
40	⑤	**41**	①	**42**	④	**43**	②	**44**	③
45	⑤								

3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에서 '여러분, 지난주에～기억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조선 시대 의복 전시를 관람한' 경험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4문단에서 '금박 흉배를 만드는 모습' 중 '옷감 위에 문양이 새겨진 목판으로 풀을 찍'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을 뿐, 흉배 문양을 목판에 새기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오른쪽 초상에서 관복의 가슴 위치에～확인할 수 있지요'라고 하며 흉배가 관복에 사용된 위치를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을 ㉠에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흉배가 '조선 건국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 말까지 없었던 흉배가 조선 시대에는 쓰인 것을 알 수 있지요.'라고 하며 [자료 1]을 ㉠에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흉배의 배경 문양으로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사용했'다고 하며 흉배의 배경 문양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에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조선 시대 문관의 묘에서 출토된 쌍학흉배의～문관을 상징했습니다'라고 하며 문관의 흉배에 주 문양으로 사용된 동물의 예인 '학'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2]를 ㉡에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3'은 발표 내용의 일부인 '흉배'가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흉배는 지위에 따라 달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왕의 곤룡포에 쓰이는 흉배에는～알고 있었어.'라고 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인 '무관의 흉배에～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알려 주지 않아서 아쉬워'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흉배의 문양이～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라고 말한 것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언급하며 '유익했어'라고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왕실의 흉배에 쓰이는 문양과～알아봐야겠어.'라고 하고 있고, '학생 2'는 '무관의 흉배에 사용된～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도서관에 가서 더 조사해 봐야겠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두 학생 모두 발표 내용인 '흉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 파악하기

(가)의 4문단에서, 건의 사항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다른 작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해결에 대해, '저희들이 당번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건의 주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고쳐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하기

(나)에서 '학생 3'은 '꽃이 피든～찍으면 되도록' 캠페인의 방향을 바꾸자고 하였고, '학생 2'는 '듣고 보니～맞는 것 같아.'라고 하며 '학생 3'의 발화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학생 1'은 '사진 찍을 잡초의 범위를 더 넓혀서～되겠네.'라며 '학생 3'의 발화를 반영해서 초고를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 전체에 핀 잡초의 꽃들을 감상한 후'라는 내용은 캠페인의 장소를 확대하는 것일 뿐, 사진 찍을 잡초의 범위를 확대하여 꽃이 피는 잡초와 피지 않는 잡초의 사진 촬영이 모두 가능하도록 캠페인의 방향을 바꾸자는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학생 2'는 '학생들이 잡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더 추가'하자고 하고 있고, '학생 3'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결과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며, '학생 1'은 '좋은 생각이야.'라며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나)에서 '학생 3'은 '토끼풀을 탐구해 보자'고 하고 있고, '학생 1'은 '토끼풀이 흙에 양분을～탐구 방법을 초고에 언급하면 되겠'다며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학생 3'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은 삭제하면 좋겠어'라고 하고, '학생 1'은 '그런 부분은 삭제할게'라고 하였다. (가)의 3문단에 나타난 '비료를 써서～있을 것입니다.'라는 문장은 비료를 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3문단의 중심 내용인 '잡초 관찰 구역의 활용 계획'과는 관련이 없어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나)에서 '학생 3'은 '캠페인 활동에서 학생들이 잡초를 찍은 사진'을 '동아리 발표회 때 전시'하자고 하고 있고, '학생 2'는 '학생들이 찍은 사진도 함께 전시하면 ~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아'라며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학생 1'은 이 내용을 반영해 초고를 수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글쓰기

(가)의 3문단에서 나타난 '텃밭 일부를 잡초 관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 내용에 관해, '텃밭 일부를 잡초 관찰 구역으로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건의를 수용해 달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서, '공기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역할 이해하기

(나)에서 '학생 1'은 마지막 발화에서, '설득력 있는 건의문을 ~ 유익했다고 생각해.'라고 대화 내용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의 '학생 3'은 '꽃이 있는 식물을 더 아름답다고 느꼈다는 거구나.'라고 상대인 '학생 2'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학생 2'는 앞선 상대인 '학생 3'의, '돼지풀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발화 내용에 대해 '돼지풀은 다른 작물들을 못 자라게 할 수 있는 풀'이라고 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학생 3'은 상대인 '학생 2'의 '돼지풀은 ~ 알고 있어', '다른 잡초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게 좋겠네.'라고 수긍하면서, '돼지풀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좋겠'다고 한 자신의 발화 내용을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고 수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의 '학생 2'는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이 ~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염려돼'라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A]의 '학생 3'은 '토끼풀을 탐구해 보자'라고 제시한 자신의 의견과 관련하여 '수업 시간에 토끼풀이 ~ 준다고 배웠잖아'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며, [B]의 '학생 2'는 '원래대로 꽃이 피어 있는 잡초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시한 자신의 의견과 관련하여 '나도 식물원에 갔을 때 ~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보기>에서 '소리 환경을 개선'할 때, '학생들은 쾌적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ㄴ에서 '학생들에게 자연음을 활용한 ~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ㄷ에서 '자연음을 활용한 ~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며 '더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리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교내의 인접한 공간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리 환경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은 2문단의 '공간을 배치할 때 소리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자연음을 활용한 소리 경험 제공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1을 보면 자습실에서 학습에 방해되는 소음들 중 자습실 옆 휴게실 소음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자습실의 학생들은 휴게실의 소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여 소리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 배치가 학생들의 학습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ㄱ-2를 보면 자연음을 청취한 후 스트레스 저항력이 증가하고 산만함 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2문단의 '자연음은 학생들의 산만함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 주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ㄷ의 '○○ 학교는 학습 공간의 소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재생하고 있다.'에서 자연음을 활용한 소리인 물소리를 통해 학습 공간인 도서관의 소리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3문단의 '복도의 특정 구역에 새소리를 ~ 높일 수 있다.'에서 복도에 새소리를 재생하여 자연음을 활용한 소리를 학교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ㄱ-1에서 외부 소음이 자습실의 학습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제시되었고, ㄴ에서 외부 소음이 학교에서 '학습 몰입 방해와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3문단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③ 제시된 문장에서 '젊다'는 '나이가 한창때에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고, '늙다'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제시된 문장에서 '크다'는 '수준이나 능력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있다'는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1문단에서 '용언은 의미에 따라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 동사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형용사로 분류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있다'의 품사를 분류할 때는, 동사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더라도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크는'과 '있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는 동사의 활용 방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의미를 고려하면 서로 다른 품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고 있다'가 '입다'와 같이 신체에 무엇인가를 접촉하는 행위와 관련된 일부 동사와 결합하면 두 가지 동작상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중의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신고 있었다'의 '신다'가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와 관련된 동사이며 제시된 문장이 그가 운동화를 신는 중이라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운동화를 신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4문단에서 '있다'는 중세 국어에서 '잇다'의 형태로 나타났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의 '이셔'는 모음 어미 '-어' 앞에서 '이시-'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꽃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인 형용사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사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잇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고 잇/이시-'는 진행상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의 '쮜우고 잇거니'가 '피우고 있었으니'의 의미로 '-고 잇-'을 활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있다'가 중세 국어에서 '잇다'의 형태로 나타났고 특히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의 '잇더라'는 자음 어미 '-더-' 앞에서 '잇-'의 형태가 나타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돌이 '존재하는 상태'인 형용사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형용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잇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아/어 잇/이시-'가 완료상을 나